

2024 학교폭력 예방 안내

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

-학교폭력, 방관자에서 방어자 되기 (WITTH5)-

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? 서로 다른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학교폭력상황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의 적극적인 신고와 목격 학생의 적극적인 방어 행동이 있다면 더 심각한 피해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!

1. 목격 (Witness) : 학교폭력 상황목격
2. 판단 (Inspect) :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

*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교폭력! *

- 1) 하기 싫은 행동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.
- 2) 피해자에게 부당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다.
- 3)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.
- 4) 집단으로, 지속적으로 괴롭힘/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.
- 5)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 같다.
- 6) 이 상황을 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.

3. 다짐 (Think) : 학교폭력 심각성 생각. 한 사람의 방관자라도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학교폭력 상황을 종료 시키거나 피해자가 위로받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.
4. 생각 (Think) : 도움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
5. 행동 (Help) : 도와줄지 결정하고 도움 주기

학교폭력 피해친구를 돕기 위해 나를 희생해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친구가 당장의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,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피해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음.

- 1) 피해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
- 2) 어른에게 알리기 : 친구가 고통을 당할 때 부모님, 선생님께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임.
- 3) 티내지 않고 도와주기 : 같이 밥 먹어주고, 말 걸어주기
- 4)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: '네 잘못이 아니야.' '난 네 편이야.'라고 말 해주기
- 5) 학교폭력 신고하기
- 6)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
- 7)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하기

2024년 4월 29일

인천 갈월초등학교장